

연중 제 13 주 일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협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기도서 P. 379 A해
 제1독서 (열왕후4, 8-11, 14-16절)
 제2독서 (로마 6, 3-4, 8-11절)
 복 음 (마태 10, 37-42절)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십자가의 자랑

서 용 복 신부

바로 사도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으나, 한번 십자가의 참 뜻을 안 이후로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토전서 2장 2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단 사상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특별히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사도도 물론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읍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벤자민의 지파요, 할례도 물론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그의 문벌이나, 학식이나, 할례같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는데, 십자가는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중심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느님의 공의(公義)의 계시입니다. 공의의 하느님이심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합니다. 하느님은 공의의 하느님이시므로 형벌없이 거저 죄를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만인의 죄를 대신 진 그 아들을 형벌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하느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벌하셨습니다. 만인의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벌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를 벌하셨습니다. 만인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죄없는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주셔서 벌하신 것입니다.

세째로 십자가는 하느님의 능력(能力)을 계시하여 줍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 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고린토전서 1장 18절)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만인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써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느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해서 십자가는 승리의 표로써 세계 어디서나 공중에 높이 솟아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 전주교회 주임신부)



어떤 일기

□ 6월 24일 (토)

공무상 M읍으로 시외전화를 했다. 시외전화 끝에 이상한 질문이 뒤따랐다.

“26일에 서울에서 이상한 일이 있는가? 이곳의 몇사람들이 묻제 바쁘다.”

보통으로는 정의평화 미사가 월요일에 있어서 “무엇이 있는 모양이다”고 힘도 안드리고 답해버렸다.

□ 6월 26일 (월)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지만 워낙 조용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도무지 눈치를 못챘다.

연수회 강사 신부님들의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 들어온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신부님들의 서울행이 특히 통제된다하니 무슨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정읍·장계·교산 신부님들이 당국에서 내주는 차편으로 교구청에 도착했다. 세금이 이런식으로라도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모양이다.

하루해가 궁금한 가운데 지나갔다. 석간신문도 방송도 말이 없다.

□ 6월 27일 (화)

어제 전남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느 목자님이 알려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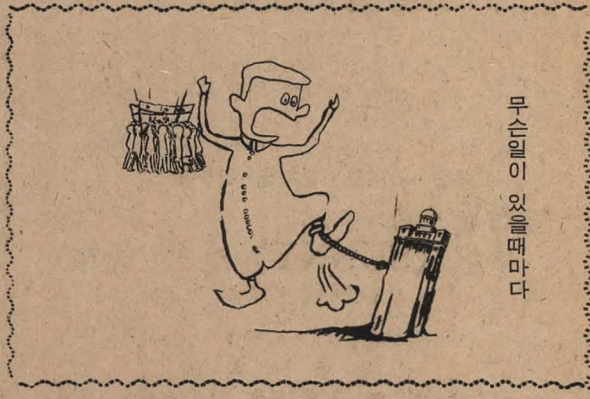
서울에서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청주교구 신부님들이 6분이나 연행되었다고 한다.

신문 방송이 일을 다물었어도, 속담처럼 <발없는 말이 천리를 왔다>. 당나귀의 귀처럼 생긴 입금님의 귀를 어찌 혼자서만 알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신문은 아직이다. 다만 “일련의 학원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모임에 신민당이 뭐라고 했다는 기사가 1단으로 짤막하게 나왔다. 허나 무슨 이야긴지 알 수가 없어야지...

다만,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는 나지만 언론부재라서 역사를 적어본다.

숲 정 이 산책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

지 학 순 주교

다음 글은 지난 5월 16일 동대문 천주교회에서 열린 신구교 합동 기도회에서 지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강론의 발췌문임(원주회보 39호에서 옮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노동자, 농민 또 권력없이 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느님 대전에 모여 이 나라가 정말 부정부패가 없고 진정한 국민의 절제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을 알아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느님께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략)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라니 가톨릭 농민회가 빨갱이고 정당한 노동 운동을 지도한다고 해서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 빨갱이요, 산업 선교회도 빨갱이라니 도독질을 하면서도 정부를 지지하는 척만 하면 좋은 사람이고 연약한 노동자를 착취하여 호화판으로 살면서 약한 사람의 얼굴에 똥이나 뿌리고 행패를 부리는 노동 귀족들은 기세가 당당하니 백만 있으면 그만이요. 법도 없소! 도대체 누가 빨갱이요, 누가 바른 사람입니까? 며칠 전 평화시장 노동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방청객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고 분통이 터졌으면 울음을 터트렸겠습니까? 최후 진술을 하고 쓰러져 실려 나간 신순애양의 그 적절한 한 마디 한 만디를 인간이라면 어찌 눈물없이 새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노동자들이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원망스럽게 짓밟아 버리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전자료를 만들어 주는 이적 행위가 될 것이고 순진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에게는 공산주의가 더 좋은가 보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켜 결국은 당국이 빨갱이를 양성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당국자 여러분의 고충에도 동정합니다. 양심의 수궁이 가지 않은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할 수 있다니, 연약하고 선량한 노동자들을 울려야 잘 살 수 있는 어용노동자 간부들에게도 동정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대체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떼처럼 끌려만 가야 하나—

광주 가톨릭 농민회 사진, 동일 방직 사진, 방립 방직 사진, 인선사 사진, 신흥제분 사진등은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억압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

□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써니 (SUNNY) 전자 울건

※ 교우들에게 특별 열가 봉사

☆ 대리점 :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대 표 : 염 규 철(요섭) 2-6111

“주여! 힘과 용기를...”

전 갑 균(라파엘)

“여보! 큰방에 가서 시계 좀 봐, 이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힐라리아가 결혼산물로 준 나의 손목시계가 시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어서이다. 시간이 더더 간다. 지난밤은 어찌 그리도 더더게 새는지, 여름밤이 아니라 동지설날 기나긴 밤이었다. 비라도 오지 않을까, 제발 오늘날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시간이 아직도 멀었다. 성서를 펴두고 읽어본다. 어랍소! 빛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일행이 오늘 박종근 신부님께 면회하러 아침 7시에 출발한다. 여러차례 다른 일로 광주를 갔었지만, 오늘은 더 먼것만 같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여 택시로 월산동 군인회관에 도착하니 군중 신부님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오늘은 훈련중인 신부님들의 특별한출 날이라서 이곳으로 늦어도 열시까지지는 다 오실 것이라신다.

11시가 훨씬 넘어서야 군복 입으신 신부님들이 들어닥치면서 왓지저겔다. 무척이나 좋으신가 보다. 맨끝에 들어 오시는 박종근 신부님을 우리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둘러쌌다. 서로를 얼싸안았다. 얼굴을 만져 본다. 아래 턱이 더 길어진 것 같다. 눈이 더 커졌다. 손이 상상하여 답답(?)을 만져보는 것 같다. 시키면 살갓에 이와 손뭉음이 희다.

코 끝이 시큰둥 해지며 눈물이 뿜그르 눈자위를 땀도는 우리들은 잠시 말을 잊었다. 여러 말이 필요없다. 다만 마주볼 뿐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뜨거운 정만이 흐르고 있다.

준비해간 음식들을 열다섯 분이나 되는 신부님들이 맛있게 다잡수신다. 서로 정담을 나누며 노래하고 우리 일행 아가씨들도 노래를 부른다.

점심이 끝나고 다른 신부님들은 모두 뿔뿔이 시내로 불일 보러 나가시고, 우리는 박신부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고된 훈련중에도 우리 신자들의 얼굴을 그려보신다. 특히 밤중에 보조를 서실 때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별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의 얼굴과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건강함과 충실함을 기원하신단다. 자유(?)가 그림과 신체적 건강함이 절실하 그림단다.

군대훈련 받는 만큼 분당 생활중 활동하셨더라면 더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다. 특유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말씨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어찌할 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석별의 정을 우리 8명은 차마 말로 다할 수가 없음을 말해 무엇하랴.

“가시거든 교우분들께 안부 전하시고, 나보다도 나와 같이 훈련 받는 분들을 생각하시어 기도해 주십시오”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꽤 마른) 세모꼴의 얼굴과 손을 흔드실 때의 기다란 손이 우리들의 눈에 어른거린다. 전주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창밖으로 끊임없이 억수로 내리 쏟아지는 저 비는 알아 줄것인가. -비야! 그쳐라. / 비야! 그쳐라. / 환하게 햇살을 비쳐다오.

훈련받는 신부님들을 위하여 늘 생각중에 기도합니다 (덕진 천주교회 전례위원장)

☆ 교우 여러분의 세무 대책 상담 환영합니다

- 업무 ☆세무고문·장부조직·기장지도·제세신고대리
- ☆법인설립·청산·결산에 따른 세무업무대리
- ☆이의신청·집사청구·심판청구·기타업무대리

세무사 임 증 을(마태오)

□ 사무실 : 전주시 경원동 3가 34-7(세무서 후문 앞) 제일고시학원 2층(전화 ☎ 2646)

(시조)

새남터에서 울리는 말썽의 鍾

—복자, 김대진 신부님을 기림—

김 환 식

그때 그 하늘에도
해는 떠오르고

일곱해 만에 찾아온 옛터
쑥대밭 머리 피바람 일어

상복(喪服)을 펼쳐 입고
영생의 백의종군(白衣從軍)

온누리가 한 빛인데
오밤중인 그 심지(心地)에

아베는 이미 잘리우고
어베는 이승의 걸인(乞人)

피로 걸군발에
<사랑의 씨>를 심노라

진리(眞理)의
불을 지르고
칼날이긴 목숨들.

오히려
큰 불번지는
웅기 굴속의 영화(靈火)여!

모든 것
다 바치고서
한해도 채 못누린 아픔이야.

입이 가신 그 모습으로
한길을 따르는 당신

용인(龍仁)골 깊은 산마루에
빈을처럼 달이 오르던
화전밭 불탄 자리마다
새마음 돌는 거룩한 소리

열두 뱃사공은
목자와 양의 무리

회자수 칼바람이
하늘나라 문을 연다.

황해 미친 물결도
한 앞으로 다스림은

<새남터>
새로 태어남터
큰 말썽으로 鍾이 울린다.

뿌런바
호연(浩然)한 기상
부룩진 죽순(竹筍)이다.

높으신
큰 뜻을 받들어
한결 같이 모심이다.

피바람 차시운지 한백년
제마냥 펼친 마음밭에

열다섯 애편 연륜
맨발의 가시밭길

한핏줄인 첫 사제(司祭)가
받아모신 <사랑의씨>

믿음의 혈맥(血脈)을 이어
뿌리 깊은 江이 흐른다

밤을 낮으로 밝혀도
압록강 서슬푸른 덮에 걸려.

황산포(黃山浦)
라파엘호의 만선(滿船)
가꾸어갈 새터전

겨자씨
창궁(蒼穹)을 겨누는 몸짓
불 부비는 소리 들린다.

<일어나>
가라 하심에
눈더미에서 살아나고

(註): · 황산포: 충남 강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
· 라파엘호: 김대진 신부께서 1845. 10. 12 상해로부터 입국할때 타고온 배이름
· 회자수: 군문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친역인

요심이 (257) 김병호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体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글라라)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애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병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테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 4577, 5789)

□ 직원 채용공고 □

1. 모집인원 : 남자 ○명
2. 응모자격 : 고졸 이상의 실력을 가진자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30세 미만의 남자
3.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명합판사진, 병적증명서 각 1통
※ 부기 주산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4. 접수기간 : 1978년 7월 7일 오후 5시까지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 : 8일 오후 5시
본조합 사무실
6. 접수처 :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내 본 조합 사무실
전화 ☎ 3185

전주 임원 신용협동조합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양심을 찾자 ★

협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원규 (야고보)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서품식(5월<수> 오전 10시 30분, 중앙성당에서, 주례: 황민성 주교)
 - 사제...강덕행(요셉, 중앙), 김기수(요한, 둔율동) □부제...권이복(베네딕도, 한들)
 - ※ 새 사제 첫미사...강덕행(6일<목>) 오전 10시 30분 중앙성당), 김기수(6일<목>) 오후 4시, 둔율동성당)
2.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7일<금> 오후 8시, 전동 성당에서)
 - 주제...종교와 인생 ※ 강사...박도식신부(철학박사, 광주대진 신학대학 교수)
3. 홀인 문제 상담일(10일<월>), 교구청 응접실에서)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3일<월>) 오후 8시반, 가톨릭 센터에서)
 - ※·특강...김광일 변호사(앤네스티 부산 지부장)
5. 사회정의 평화 기원미사: (10일<월>) 오후 8시, 중앙성당)
 - ※ 전주시에 본당은 당일미사를 없이하고 이 미사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시기 바람
 - 주교님 소식: 6월16일 오전 12시 20분부터 30분간 교황성하를 알현하셨습니다. 주교님 전장을 위해 기도 바람
 - 고 김영태(도민고)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4일<화>) 오전 10시 30분 중앙성당에서)
 - 김중태(가스발, 덕진본당 교우) 수해화전(6. 30-7. 5<수>), 도청앞 사리문 다실에서)

(중앙)

주임 신부 서 동 복
보좌 신부 보 승 현
사도 회장 이 복 석

전화 ③3651
③3874

1. 축! 영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1시반 (성당)
3. 본당 신부님(토마스) 영명축일: 7월 3일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식: 공식 미사후)
4. 김도민고 신부님 1주기: 4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미사
5. 사제서품: 5일(수) 오전 10시 30분
6. 새신부 첫미사: 6일(목) 오전 10시 30분
7.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6일(목) 오후 2시
8. 성심 부녀회 월례회 7일(금)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143,832원

(노송동)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전화 ③ 7032

1. 애령회·화생회 월례회: 금일 공식 미사후
2.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7일 어머니 미사후
3. 예비자를 안내합니다: 예비자 안내는 신자의 의무
교리시간: 매주(금) 오후 8시,
주일 공식 미사후 (주 2회)
4. 축 황도마 수사님 분명축일!
7월 3일 수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합시다
5. 기일연도 접수: 각 가정에서는 기일연도 있을때 신자들의 기도를 위해서 본당에 접수하세요
6. 교무금 신입: 78년도 교무금 신입 못하신분 속히 신입하십시오
7. 감사합니다: 사도회 상임위원 (성당에 선봉기 1대기 증)
- 교황주일 봉헌금: 57,290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③2182

1. 사도회 확대회
2. 보좌신부님 부임: 7월 8일 사목활동을 위해 많은 기도를...
3. 본당신자 가정은 교우의 집 문폐달기 한가정도 빠짐없이...
4. 예비자를 교리반으로 인도합니다
교리시간: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일요일 오전 11시
5. 정월수 기증: 전주제지 사택 (김우자씨)
미사주봉헌: 유정순(테레사) 감사합니다
6. 부녀회: 공식 미사후 (강당)
7. 제대초 봉헌: 장윤옥 할머니
- 지난주 봉헌금: 119,450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전화 ③5238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우회 월례회(야외) 다음주일: 7월 9일
장소: 상관성당 후편 하천,
유사-김화영, 노환규, 김방웅
3. 영세: 7월 5일(수) 오후 8시(아침미사 없음)
대부모와 같이 미리 준비바람
4. 봉헌금 납부: 미수 없도록 납부 바람
5. 모든 신자들은 각 신심단체(제지오마리아, 부녀회,

성우회, 학생회)에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6.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시 반회장에게 연락바람
7. 일일교장: 오늘 박홍기씨 다음주일: 김국원씨
※ 특보: 제병대 30,000원 봉헌(익명)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66,855원

(서화동)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전화 ②2276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2. 별관 신축 기공식: 10시 미사후
3. 반상회: 7월 4일-제1반, 5일-2반, 6일-3반,
7일-4반
4. 신축 성금 현황: 오현택 본당 신부님 100,000원,
4반-정반성 100,000원, 이양환 20,000원,
3반-이정빈-40,000원
- 지난주 봉헌금: 40,195원

(윤정이)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도

전화 ③7366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중·고등 학생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3. 중·고등 생 회합: 매주일 오후 4시
4. 첫영성체 준비교리: 화·수·목·금-오후 5시
5. 첫 영성체식: 7월 9일 공식 미사후 예정
6. 예비자 교리시간: 화·수·목·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124,08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유 석
사도 회장 유 준 석

전화 ③3222

1. 사도회: 저녁 미사후
2. 성화회: 10시 미사후
3. 대건신용조합 임원, 직원 24시간 피정
8일-8시, 9일-9시(가톨릭센터)
4. 젊은이 성서연구모임 기념사진 신청요망
5. 지성인 신앙강좌: (종교와 인생)
7월 7일 저녁 8시-전동성당
6. 성당의자 봉헌금 마감: 금주간까지
(봉헌자 명단 3면 참조)
- 지난주 봉헌금: 144,050원

(파티마)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려

전화 ③7249

- ※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사제 순교자 대축일: 7. 5(수)
밤 8시 미사
1. 정기사도회 임원 및 각구역장 월례회:
주일 저녁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7. 7(금) 어머니 미사후
 3. 구역회장 임명: 본당을 위하여 수고하실 구역회장님
개 성원을 드립니다
서원1구역: 조은식(테레사), 서원2구역: 전창현(말
순), 서원3구역: 송길정(모니카), 서원4구역: 박유
순(분다), 안행동: 안기순(엘리사벳), 효자주택: 장
용근(시몬), 효자1가: 정귀남(누시아), 효자2가: 조
홍옥(마지아), 에그린: 김원준(야고버), 효자1단지
: 최양금(아가다), 효자2단지: 이경순(안나), 삼천
동: 박문규(비오)
 - 지난주 봉헌금: 25,075원